

中華民國 食品科學技術學會

— 台灣 - 日本을 거쳐서 —

韓 壽 南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中華民國 食品科學技術學會에 초청을 받아서 11차 회의에 참석하였다.

식품의 안전성을 주제로 하는 학회의 회의는 12월 15일에 台灣大學의 학생 활동중심의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식품의 개발에 대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Chinese Institute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CIFST)는 식품연구에 있어서 국내 외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1970년에 창설된 이래 매년 12월 중순에 열리는데 전체회의, 연구 분과회 등을 통해서 학술적 및 기술적인 분야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토의한다.

회원수는 2000여명이며 이중 영구회원이 400명이고 단체회원수 80개 단체이다.

국제적인 활동으로는 국제식품과기 연맹에 가입하였고 작년 6월 7일~10일까지 미국에서 41차 식품과기학회에 20명의 대표를 파견해서 5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CIFST에는 전문분야 별로는 (1)식품품질조, (2)식품배료조, (3)식품가공 기술조 등 3개 분과가 있고 이 분과를 통해서 전문적인 분야의 연구자들이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학회의 회의는 15일 9시부터 시작되었다.

국민의례, 회장인사에 이어 보고에서 본인을 여러 회원에게 소개하였다.

특별강연으로서 행정원 위생서장인 許子秋博士의 식품관리와 식품공업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다음에는 (1)우수식품공업 기업가상(6명) (2)학술 및 기술상(5명). (3)신제품 보상(5개소) (4)식품과기 장학금(연구생 16명, 전문교 11명) 등의 상패 및 상장의 수여가 있었다.

대만대학 農化料의 王西華교수로 부터 고체 발효 및 식품가공에 대한 논문발표가 있었다.

오후에는 蠶食과 1층 107실에서 출판된 식품전람회를 참관하였다.

다음에는 각분과별로 식품품질조는 2층 242실에서 천연과즙의 표준검사에 관한 연구와 10편의 논문 발표가 있었다.

본인은 이 조에서 한국에 있어서 식육의 안전성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食品配料組는 2층 202실에서 탈지미당의 고도이용에 관한 연구의 10편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식품가공 기술조가 대강당에서 비보편성 식품의 개발에 관한 연구의 1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본인이 참가하였고 대회장인 蘇仲卿博士는 1964년에 대만대학 농화과에서 1년간 蘇博士와 공동연구를 하였다.

蘇博士는 中華民國에서 생화학적 면에서 권위있는 학자인데 본인과는 14년만의 재회였다.

특히 미국에서 많은 연구비를 받아서 대두 단백질의 인산화 修飾 및 그 기능성질의 개량에 관한 연구와 몇가지 연구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에는 유관기관의 방문 및 관광을 하였다. 14년만에 대만을 방문하였던 바 모든 면에서 많은 변화를 보였다.

건축면에서도 지진관계로 전에는 5층 이상의 건물이 없었으나 현재에는 27층의 건물이 있고 육교와 지하도는 여러 곳에 많이 있었다.

국립 清華大學을 방문하였다. 이 대학은 台北市에서 고속버스로 1시간반이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학원(12과) 및 공학원(11과)와 원자과학원(5과)으로 구분되어 있고 특히 원자핵과가 국제적으로도 유명하다.

원자로가 설치되어 있고 대개의 방사선 동위원소를 자체 생산하여 원자력의 평화이용에 사용하고 있다.

학생수는 대학부 1707명, 석사 429명, 박사 15명 計2151명이다. 이 대학의 학생전부가 기숙사에 들어있다.

분자생물학 연구소장인 楊振忠博士의 안내를 받아서 각 학원을 시찰하였다.

특히 이학원에 속해있는 이 연구소는 대학원생만 있는 연구소로서 석사 및 박사반 약 56명 있었다.

이 연구소의 중요한 연구과목은 생물활성인 단백질의 구조 및 작용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

었으며 이중건물로 소장실을 포함해서 19개의 방으로 구분되어 있다.

계단강의실, 회의, 고압, 전기냉동실 등 각 실마다 최근의 기기가 설치되어 각 분야별로 연구를 하고 있고 특히 楊博士는 Cobra독의 생화학적인 연구(그중 아미노산의 배열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학자이다.

17일에는 대만대학 농화과의 張爲憲博士와 宋賢一博士의 연구실을 방문하였다. 주로 친화크로마토 그래피를 이용하여 페지의 체장에서 단백질 분해효소의 분리에 관한 연구외에 몇편의 연구를 하고 있었다. 전자 현미경이 설치되어 있는, 단독의 건물이 최근에 건축되어서 이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오후에는 회장인 蘇博士가 베푸는 환영연에 참석하여 何교수, 張博士, 宋博士, 陳先生과 14년만에 상봉해서 지난 얘기와 근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며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18일에는 대만대학 수의학과의 劉榮標博士와 李永基博士의 연구실을 방문하였다. 두 박사와 같이 수의학계의 여러방면에 이야기를 교환하였다. 14년전과 달라진 것은 인축공동 전염병 연구소의 이중건물이 따로 건립되어서 주로 劉博士는 대만차의 항암작용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었다.

오후에는 대만대학 축목과의 과장인 宋박사의 연구실을 방문하였다. 각 연구실을 시찰하였는데 규모는 서울대학교 농대 축산과보다 적었으나 모두 열심히 연구하고 있었다.

다음에는 대만성 경제부 농업국 축목조를 방문하였다, 조장인 莊博士로 부터 현황과 대만의 양돈사업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었다. 특히

식육에 관한 면에서 쇠고기는 대만도 약간 수입되고 있으나 돼지 고기는 매년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다도 쇠고기, 돼지 고기 값이 싼 편이었다.

최근에 건립된 將總長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대북시내의 중심부에 있고 면적은 30만평에 3층 중국식 건물로 되어있고 건축비는 약90억원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매일 수만명의 관광객이 참관하고 있으며 將總統의 일대기가 연도별로 書物, 서적, 훈장 등이 각실에 진열되어 있었다.

여기서 우리 새마을 연수단 일동과 상봉하였다. 외국에서 한국사람을 만나서 매우 감명 깊었다.

19일에는 시내를 관광하였으며 특히 14년전보다 모든 면에서 변화가 많았고 물가는 20배나 상승되어 있었다.

20일에는 짧은 일정을 마치고 C. P. A.편으로 일본으로 향하였다.

21일에는 神奈川縣에 있는 麻布 獸医科大学를 방문하였다. 医化学 연구실에 古泉博士와 滿 2년만에 상봉하였다. 이 연구실에서는 뱀에 함유되고 있는 지방산의 탈취에 관하여 연구해서 완성단계에 있었다. (바다의 뱀)

또 기생충의 板垣博士와도 만나서 최근의 연구동향과 논문에 대한 협의도 하였다.

오후에는 동경농업대학의 가축육종학 교실을 방문하였다. 鈴木博士의 안내로 각 연구실을 시찰하고 육종학의 최근의 연구동향과 논문에 대해서 협의하였다.

22일에는 동경대학 농학부에 부속동물병원을 방문해서 내과, 외과, 임상실을 시찰하였으며

여러가지 기기를 이용해서 진단에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특히 이 대학에 유학하고 있는 金德煥君(박사과정)과 약리학의 安君(석사과정) 또 약학부의 禹君(석사과정)과 4~5년만에 상봉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23일에는 동경대학 의과학 연구소의 세균학 연구실을 방문하였다. 加藤博士의 안내로 여러 연구실을 시찰하고 최근의 미생물학의 연구동향, 특히 인터페론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후에는 千葉市에 있는 방사선 의학연구소를 방문하였다.

白石博士의 안내로 각 연구소를 시찰하였으며 白石박사는 동물에 중요한 원소(Ca, Mg, Pb, Sn)를 먹여서 체내의 대사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24일에는 群馬縣 蕨場에 있는 일본 蛇族학술 연구소를 방문하였다. 소장인 澤井博士, 曾博士의 안내로 채독실, 飼養室, 標本室 등을 시찰하였고 澤井博士로부터 사독에 대한 최근 연구동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각국의 蛇咬病에 대해서)

10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으나 대만 및 일본에 여러 방면에 있어서의 최근의 연구동향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 장차 우리나라에 연구동향과 科学化를 위하여 준비와 계획을 활성화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점이 있었다.

우리나라라도 일본과 대만과 같이 모든 연구소가 국가에서 많은 연구비를 얻어서 각자가 하고자 하는 연구를 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일본을 출발하여 귀국길에 올랐다.